우리가 무슨 동네북인가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좀 뜨악하긴 했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대통령의 이 말씀,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찜찜하다. 왜 그럴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목 앞에 칼이 들어오는 이 위급한 때에 너무 한가한 말씀 아닌가.

그래도 야당은 신이 났나 보다. 제1야당 대표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소들은 좋겠다. 웃을 일 많아서.) 같은 당의 또 다른 의원도 "대통령의 몽상가적 발언에 북한이 '꿈 깨시라'며 새벽에 미사일로 직접 화답했다"고 직격탄을 쏘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발언이 있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북한의 김정은은 모종의 발사체를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그러니 야당의 비난이 좀 지나치고 얄망궂다 해도, 달리 할 말이 없을 듯싶다.

북한이 쏘아 올린 방사포는 매우 위협적이라고 한다. 정확하고 빠르지만 최대 비행고도가 낮아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사일보다 싸기 때문에 수십~수백 발을 한꺼번에 쏠 수 있단다. 한데 요격 수단은 현재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에도 없는 상태다. 이 방사포는 우리 군의 '전략무기'인 F-35 스텔스기가 배치된 청주 기지나, 육해공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오싹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희희낙락이다. 사정거리가 자기 나라 본토에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상관없다는 뜻일 게다. 그래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는 내심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사 사장(국장급)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 예상 지역으로 한국·일본·호주를 거론하며 "(미국 미사일을 배치하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사면초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간절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통하고 남쪽은 철저히 배격하는' 통미배남(通美排南) 전략으로 돌아섰다. 사드 배치 사태 때도 그랬지만 중국의 겁박도 계속될 태세다. 일본은 방심하고 있는 사이 우리의 뺨을 호되게 후려쳤다. 동맹국이라는 미국은 방위비 올릴 궁리에만 골몰한 채 싸움 말릴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하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

어느새 우리는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다.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 놈 일어나니 조선인들 조심하자." 8·15 광복 이후 세간에 떠돌았다는 말이 문득 떠오른다. 미·소 두 나라는 일본을 굴복시킨 해방군이니 그렇다 치지만, 향후 일본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그 무엇에 근거했을까?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어 영원히 재기 불능으로 보였던 일본 아니었나. 그럼에도 당시 우리 민중들은, 경제 대국이 되어 다시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지금의 일본을 미리 내다본 셈이니, 그 혜안에 새삼 감탄할 뿐이다.

전후 일본의 부흥은 순전히 우리 덕분이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었다. 1950년대 미국은 한국에 매년 2억여 달러의 원조자금을 제공했다. 대신 '그 자금으로 일본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일본을 공산권 견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 아래 일본의 경제 부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이를 최대한 이용, 신생국가 한국을 길들이며 끊임없이 일본 의존도를 높여 갔고, 결국 한국은 일본 경제 예속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유일하게 70년 넘도록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이유다.

한일협정 때도 미국은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시에도 미국의 압력이 있었다. 역사의 고비마다 미국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해 온,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이런 미국에 온갖 알랑방귀를 뀌며 한국을 내치려 한다. 목적은 다르지만 북한의 '통미배남' 전략을 쏙 빼닮았다.

장기 집권과 개헌을 꿈꾸는 아베 총리가 그동안 예고했던 대로 엊그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개별 허가' 품목을 더 지정하지는 않았다. 잠시 추가 경제 보복을 멈추고 한국 상황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해 "경제 보복이나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전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다.

아사히 맥주만 사지 않아도

나는 20여 일 전에 쓴 칼럼('일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7월19일자 2면)을 통해 '국민과 정부의 분업화'를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냉철한 자세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은 일제 불매 운동으로 일본과 맞짱을 뜸으로써 정부에 힘을 보태 주자는 것이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한데 그 자발적인 국민의 불매 운동과 애국심에 편승해 자신의 이득을 보려는 이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일례로 어느 자치단체장이 일제 사무용품 안 쓰겠다며 죄다 걷어서 투명한 상자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펼쳤다는 거다. 이에 어느 작가가 점잖게 나무란다. "저렇게 멀쩡한 물품을 단지 일제라는 이유로 다 걷으면 자원 낭비 아닌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사에 한 번 이용하고 나서 세금으로 다시 사겠다고? 아니 눈이 있으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떤 댓글들이 오가는지 좀 보시라고요."

"유니클로 옷 산 거 어떡하죠?" "이미 산 거 할 수 없죠. 앞으로 안 사면 됩니다." "맞아요. 멀쩡한 옷 버릴 순 없으니까. 집에서 잘 입으세요." "네. 어차피 장기전입니다. 불필요한 자극도 비난도 하지 맙시다," "유니클로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집 근처에 세븐일레븐은 또 어떡하죠?" "편의점주는 소상공인이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편의점 이용은 하되 아사히 맥주만 안 사도 충분히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 정도다. 누군가 감히 '감 놔라 배 놔라'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아니, 참으로 어른스러운 성숙한 면모다. 다만 이에 수준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문제일 뿐이다. 그리고 또! 나라를 걱정하는 체하면서 늘 분열을 조장하는 일부 보수 언론은 더 큰 문제다.

'제1회 섬의 날' 목포 삼학도서 개막

기념식 갖고 화합·소통 다짐…오늘 섬주민대회 개최

국가 기념일인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8일 목포 삼학도에서 전국 섬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대하게 개막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섬을 보유한 전국 시장·군수, 도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전국 103개 섬 주민 등 3000여 명도 참석했다.

개막식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갈 때 힘을 내기 위해 부르던 제주도 대평 어촌계 해녀 공연팀의 '이어도사나' 공연으로 배를 띄웠다.

제1회 섬의 공식 기념행사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섬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평화를 이루고 육지와 연결되며, 나아가 세계를 향한 꿈이 시작되는 곳이자,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행복을 열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사람, 만남, 평화, 연결, 꿈, 자연, 행복, 미래 등 섬의 8가지 가치를 제시했다.

기념식에는 전국 4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제부도, 마라도, 비진도, 선유도 등 전국 103개 섬 주민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와 화합하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섬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섬 발전지원센터 설립'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서 주민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한 전남도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통영시, 옹진군, 제주관광공사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9일부터 다양한 섬 관련 행사도 이어진다. 전남도, 행정안전부, 목포시, 신안군,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회도서발전연구회, 전국섬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오전 목포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제1회 전국 섬주민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섬주민 대회는 올해 처음 맞이하는 섬의 날 국가기념행사의 하나다. 전국 섬 주민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다. 이날 오후에서는 행정안전부, 목포시, 신안군, (사)한국글로벌섬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회도서발전연구회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섬에서 희망을 찾다'란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다. 학술대회에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국내외 섬 전문가, 섬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8일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에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섬들을 소개하는 부스가 관람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백색국가서 日 배제 첫 논의

최종안 발표는 일단 연기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발표한 후 해당 안건이 총리 주재 회의에서 처음 다뤄졌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내놓은 것이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정부는 '다'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물자 지역 분류 방식과 새로 만들어지는 다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수출통제 제도 적용 범위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회의에 앞서 이번 주 내 정부가 자료 혹은 브리핑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제도 변경 관련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1차 규제 대상이었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주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어서 정부 역시 추이를 보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을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방식이나 일정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자 하실분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나주시 세지면 송제리 대지 393㎡ 2500만원
•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대지 440㎡ 주택 53㎡ 수양생활 최적 47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400여주 84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500만원
• 함평군 월야면 예덕리 대지 235㎡ 전원생활 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남구 덕남동 빛고을cc 뒤 남향 652㎡ 생활편리지역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 8232㎡ 그린벨트 임 9억4800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쌍촌동 소방도 접 118㎡ 나대지임 투자에도 양호 1억6천2백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11억 교환 22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남평읍 드들강 모텔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등 적합 17억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배로 10분 독립섬 56233㎡ 독립생활에 적합 3억6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함 13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公國認家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 / 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 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 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 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ttp://www.gnue.ac.kr/